



김준

“말보다 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투수 김준·박성호가 신인의 마음으로 꿈을 꾸고 있다.

KIA 투수들은 지난 15일 캠프를 차리고 올 시즌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19살의 막내 차명진과 대졸 신인 김영광 등 두 명의 신인 투수가 함께 하고 있다. 신인 아닌 신인 김준과 박성호도 ‘낮선 캠프’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

좌완 김준(29)은 7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는 선수다. 어린 투수들이 많은 KIA에서는 나름 고참급 선수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신인이나 다름없는 새얼 굴이다.

김준은 지난해 11월 2차 드래프트를 통해 SK에서 KIA로 이적했다. 시즌 초반만 해도 SK의 좌완 불펜 요원으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지만 트레이드로 KIA에서 SK로 등지를 옮긴 좌완 진해수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이름을 알리는데 실패했다. 이후 2차 드래프트 시장에 나와 KIA 선수가 되면서 공교롭게도 진해수와 자리를 맞바꾼 모양새가 됐다.

시즌이 끝난 후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 선수들과 얼굴을 맞댈 시간이 부족했던 김준에게 이번 캠프는 ‘낯설’이다.

올해로 6년차인 박성호(28)도 이번 캠프가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2010년 한화에서 KIA로 트레이

KIA 불펜 새얼굴 김준·박성호

좌완 김준, 제구력·배짱 합격점

우완 박성호, 가속구로 타자 압도

다양한 경우의 수, 마운드 ‘숨통’

드했던 박성호는 2011시즌이 끝난 후 상무에 입대를 하며 잠시 팀을 떠났었다.

예비역으로 신분이 달라진 사이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가 대폭 바뀌었고 선수단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 트레이드 되어 왔을 때의 기분이다”는 말이 괜한 엄살은 아니다.

고려대 동문인 이들은 낯선 환경, 낯선 출발 앞에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됐다.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는 이들은 KIA가 기대하고 있는 불펜 자원이다. 또 팀의 명예회복을 위해 역할을 해줘야 하는 이들이기도 하다.

아직 이렇다할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잠재력’으로 눈길을 끄는 재목이다.

김준은 전력분석팀에서 눈여겨 봐왔던 자원. KIA에는 귀한 좌완에 제구와 배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성호의 가장 큰 장점은 파워다. 197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가속구는 충분히 타자들을 압도할 만하다.

두 선수가 올 시즌 불펜에 합류해준다면 약한 허리로 고전을 했던 KIA는 다양한 경우의 수로 여유롭게 마운드를 꾸려나갈 수 있다.

김준은 “워낙 숫자가 없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선수들과 많이 친해질 것 같다. 적응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며 “워낙 잘하셨던 투수 출신의 감독님을 만나서 긴장도 되지만 다치지 말자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캠프를 치르겠다. 기회를 잘 잡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박성호에게도 부상 없는 캠프가 우선 목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겠다는 각오다.

박성호는 “군대를 다녀온 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마음이다”며 “해봐야지 알겠지만 2년의 시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말이나 직접 보여드리어야 할 것 같다.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성호

‘막강 화력’ 광주 FC

브라질 공격수 호마링요·파비오 영입



호마링요 파비오

프로축구 광주 FC가 브라질 특급 공격수 듀오로 막강 화력을 구축했다.

광주는 22일 브라질 빠라이바 주 보타보고팀에서 활약한 호마링요(Jefferson·25·

사진 우)와 파비오(Fabio·28)를 영입했다.

‘날쌘돌이’ 호마링요는 177cm·75kg의 단단한 체구를 지녔으며 화려한 드리블과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일품이다. 지난 시즌 소속 팀 내 득점왕(주리그 전체 2위)을 차지한 해결사이기도 하다.

세두우 스트라이커인 파비오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뛰어난 1대1 능력을 과시한다.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팀플레이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각각의 능력은 물론 지난 시즌 한술밥을 먹으며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호마링요는 파비오에 대해 “공수 전체적인 활동량이 뛰어나고 스피드 뿐 아니라 1대1 능력이 뛰어나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다”고 평가했다.

또 파비오는 호마링요에 대해 “상대방을 등지는 플레이와 공간활용을 잘 한다. 과거 상대 선수로 만났을 때 2골을 기록하는 등 득점력도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지성 월드컵 출전 불투명

5월말 동남아서 자선축구대회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박지성(에인트호벤)이 브라질 월드컵 개막 직전 동남아시아에서 자선축구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대표팀 복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박지성의 아버지인 박성종 JS파운데이션 상임이사는 22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5월 31일이나 6월 1일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자선축구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성 자선축구’의 일정이 사실상 월드컵에 나서는 대표팀의 최종 전지훈련 일정과 겹치면서 박지성의 대표팀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축구대표팀은 5월 중순께 최종명단 23명을 확정된 뒤 재소집돼 최종 전지훈련을 치르고 나서 6월 초 격전지인 브라질로 이동할 예정이다.

아직 홍명보 감독과 박지성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닌 만큼 기존에 준비해온 사업들은 계속 준비돼야 한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특히 박지성이 대표팀에 복귀하더라도 ‘정신적인 지주’ 역할 이외에는 실제로 뭘 자리가 많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연합뉴스



“4강이다”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여자 단식 8강전에서 폴란드의 아그니에슈카 라드반스카가 빅토리아 아자리칸에게 리턴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양키스, 다나카 대안은 윤석민”

美 CBS, 히메네스·아로요 등과 ‘준적급’ 분류

미국 프로야구 진출을 추진 중인 투수 윤석민(28)이 ‘뉴욕 양키스’가 다나카 마사히로를 놓칠 경우 영입할 수 있는 대안 중 한 명’으로 꼽혔다.

미국 CBS스포츠는 22일 “양키스가 다나카를 꼭 잡아야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나 시카고 컵스와 경쟁에서 밀릴 경우 선발진 보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도하며 윤석민을 ‘준적급 대안’으로 언급했다.

CBS스포츠는 양키스가 영입할만한 대어급 자유계약선수(FA) 투수로 마트 가르자, 우발도 히메네스, 어빈 산타나를 꼽은 뒤 브론스 아로요, 폴 마홀과 함께 윤석민을 ‘준적급’으로 분류했다.

이 언론은 “윤석민은 선발을 원하고 있지만, 중간 계투로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면서도 “윤석민이 시즌 시작 전에 선발진에 합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양키스는 윤석민을 영입 리스전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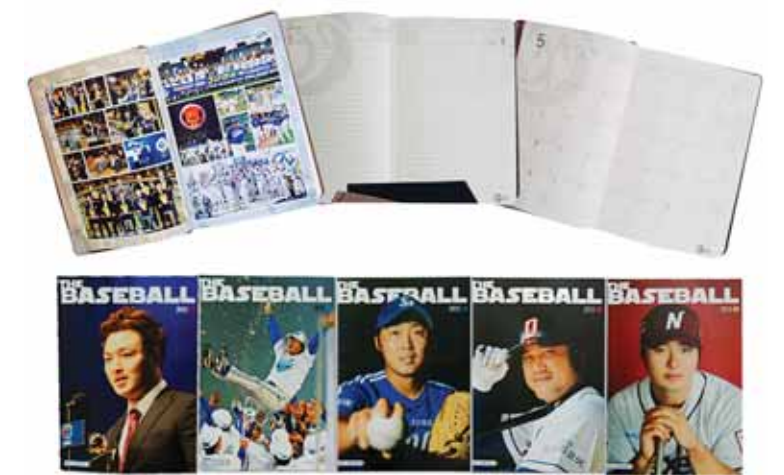
양키스는 C.C 사바시아와 쿠르다 히로키, 이반 노바 등 수준급 선발 3명

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4·5선발감을 구하지 못했다. CBS스포츠의 예상처럼 양키스는 다나카를 영입하지 못하면 다른 FA 투수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민으로서서는 아로요, 마홀과 같은 수준의 투수로 분류된 것이 반갑다. 아로요는 메이저리그 통산 138승 127패 방어율 4.19를 기록했고, 전성기가 지난다는 평가에도 2012년 12승(10패 방어율 3.74), 2013년 14승(12패 방어율 3.79)을 거뒀다. 마홀도 2012년 13승(11패 방어율 3.67), 2013년 10승(11패 방어율 4.41)을 거두며 안정적인 선발로 평가받았다.

미국 언론이 윤석민을 ‘10승 투수’로 분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윤석민은 토미 헨슨, 제프 니만, 요한 산타나보다 ‘상위 투수’로 주목됐다. 헨슨이나 니만은 FA 시장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투수지만 산타나는 메이저리그 통산 139승(78패)을 거뒀고 2006년 19승으로 아메리칸 리그 다승왕을 차지할만큼 빅리그에서도 손꼽히는 투수였다.

/연합뉴스



KBO, 월간지·다이어리 패키지 한정판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4 KBO 다이어리’와 야구 전문 월간지 ‘THE BASEBALL’ 연간 구독권을 패키지로 한정판매한다.

가죽 양장에 KBO 심볼로 표지를 꾸민 ‘2014 KBO 다이어리’에는 프로 야구 10개구단의 화보와 2014년 경기 일정, 야구 관련 주요 일정 및 행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THE BASEBALL’은 KBO가 발행

하는 야구 전문 월간지로 2009년 창간됐으며 야구 전문가들의 심층 취재기사와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패키지 상품은 4만원이며 KBO마켓(www.kbomarket.com)과 야구용품 전문 쇼핑몰인 위팬 홈페이지(www.wefan.co.kr)에서 500부 한정 판매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